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적극적인 삶 제목 : 감동스러운 다윗의 인생
 성경: 사무엘상 30장 1-8절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2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3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4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5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6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7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예뻐서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예뻐서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8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라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삼상30:1-8)

우리는 흔히 평안하느냐고 인사한다.
 평안은 좋은 것인데 가장 좋은 것은 아니다.
 평안도 나쁘지 않는데, 더 좋은 것이 있다는 뜻이다.
 평안보다 더 좋은 것은 열정이고 도전이다.
 정말 평안은 필요한데, 그런데 그 평안은 열정과 도전을 친구로 삼아야 한다.

문제는 위기상황이기 때문이다. 위기상황이 닥치면 평안은 온데 간데 없다. 평안을 묻기도 어렵다. 위기상황이 닥쳤을 때 평안만을 추구한다면 그는 결코 그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위기에서는 울부

짓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야 한다.

정말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시골이나 산골에서 지내면 된다. 물론 거기에서도 평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해야 한다.

하지만 위기는 모든 인생에게 닥친다. 태어나는 것부터 위기이고 그 때부터 죽는 순간까지 위기는 끊임이 없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오죽했으면 성인의 1/3이 암에 걸린다고 하지 않는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나라들 중에 포함되어 있다.

인생은 위기이며, 이것이 곧 실존이다. 항상 누구에게나 실패와 성공이 맞물려 있으며 복과 화가 마블링되어 있다. 복은 복대로, 화는 화대로 골라 먹을 수 없다. 가장 건강하고 좋은 방법은 역시 열정과 도전이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오직 하나님을 힘입어 그 위기를 모면하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곧바로 도전하게 되는 내용을 그리고 있다.

그는 역시 열정의 사람. 결코 포기하거나 실망하거나 배신하지 않았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핑계거리와 적절한 상황이 매번 주어졌지만, 그는 항상 열정을 선택하였으며 반면 모든 핑계거리들은 물리쳤다.

특히 그는 결코 하나님께 향한 마음을 변하지 않았다. 그는 어느 부하도 버리지 않았으며, 결코 원수 사울왕에게도 칼을 겨누지 않았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당기는 유일한 방법임을 잊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죽으려 했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려고 하였다. 오직 열정이 있는자만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께 매달린다.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도 열정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찾는다. 열정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열정이 있는 자를 찾으신다.

그가 하나님께 발탁되었을 때도 이유는 딱 하나였다. 그는 따돌림 당하는 자였고, 외톨이였으며, 보잘 것 없는 목동이었다. 그는 당시에 가장 초라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양 몇 마리를 사랑하였고 그들을 잘 돌보았으며 애정을 가지고 지키고 보살폈다. 어느날은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가면 그는 목숨을 내 걸고 그 양을 사자의 이빨에서와 곰의 손아귀에서 구출해 내었다.

아무도 열정이 없었을 때 다윗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골리앗을 죽이려는 열정으로 뜨거웠다. 골리앗은 두명이나 거느리고 나왔지만, 다윗은 혈혈단신으로 골리앗과 대적하여 이겼다. 그는 그렇게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출해 냈다.

사울왕이 마음이 변해서 사위감 후보의 자격으로 재산을 요구하였다. 결국 그는 말 사위가 되지는 못한다. 그러나 사울왕의 양심의 가책이 있었는지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의 머리 100개를 요구한다. 그러자 다윗의 열정이 이를 두배로 이루게 하였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도 끊임없이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튼튼히 하는데 힘을 쏟았다.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열정적이었다. 그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였다. 그는 말씀을 지키는데 열정적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적이었으며 전문적이기까지 하였다.

다윗은 죄를 회개하는데도 열정적이었다. 그냥 유감을 표명하는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베갯니가 적실 정도로 깊이 회개하였다.

인생이란 그렇다. 자신의 잘못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으로도 인생은 위기 투성이다. 누가 다윗 같은 인물이 간음을 행하고 살인을 하리라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발버둥 치지만, 죄악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찾는다. 그렇다고 죄악에 저서 죄 속에 갇힐수는 없는 일. 답은 진리를 향한 열정 밖에 없다.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도 우리를 멸망시키게 할 수는 없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는 한 우리는 넉넉히 그 죄를 이길 수 있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다윗은 평안을 얻기 위해서 시글락에 잠시 거하였으나, 그는 그곳에서 끊임없이 아말렉을 소탕하고 있었다. 사울왕과 블레셋의 전쟁이 있어서 거기에 출전하러 갔다가 그만 아말렉의 기습공격에 당하고 만 것이다. 아말렉으로서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닐 수 없었으리라.

다윗으로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다. 사무엘이 죽었고, 블레셋은 이제 때가 되었다고 여겨 전군을 소집하고 있었다. 정신적인 지도자 사무엘이 죽었고, 사울은 정신병으로 혼비백산이 되었고, 다윗은 우리 편이니 이스라엘은 이제 망하게 되리라고 블레셋 왕 아기스는 생각하였다.

다윗이 아기스를 도와 이스라엘을 치러 갔으니, 다윗의 본거지 시글락은 이리앞에 던져진 어린양에 불과하였다. 다윗은 원수 블레셋의 앞잡이가 되어서 조국 이스라엘을 치러가야 하는 진퇴양난의 위기를 당하게 된다.

다윗이 이 위기에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겠는가!

하나님께서 다행히 블레셋 장수들을 통해서 일하셨고, 다윗은 그 위기에서 빠져나와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미 시글락은 원수

아말렉에게 도륙당한 후였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600명의 병사들이 들고 일어났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줄 알고 우리가 따랐건만, 이제 보아라 당신은 완전히 망하고 말았다. 당신을 따르던 우리도 함께 망하고 말았다. 이제 당신을 죽이고 말리라.

다윗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갈까요? 였다. 적극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자의 물음이다. 이 물음에 답은 오직 하나다.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식구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 식구들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치러 가겠습니다.’ 였다. 하나님께서 우리 식구들을 보호하셨으리라는 믿음과 내가 치러가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인해서 가능하게 된 적극적인 행동이다.

‘어떻게 할까요’도 좋은 질문이지만, ‘어떻게 하겠습니다’ 도와 주시겠습니까는 더 좋은 질문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도왔고, 그 모든 식구와 재산과, 아말렉의 재산까지 빼앗게 되었고, 그는 그 힘을 모아 헤브론으로 가서 왕국을 세우게 되는 기회를 잡게 된다.

우리가 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실수 많고, 죄가 많은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선한 길이기 때문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우상타파 제목: 이 시대의 우상숭배 말씀:마태복음
24장9-14절

9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10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 주고 서로 미워하겠으
며

11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12 불법이 성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13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14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24:9-14)

이 시대의 우상숭배;우상정신이란, 자기 숭배. 자기 의 성취. 그런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취하는 가면이 우상이다.

-민주주의;선량한 다수를 위함. 실제로는 극소수가 주도권을 쥐고 다수를 속임. 선동함. 이지매와 왕따 논리에 강한 자가 다수를 장악하게 됨. 그러나 항상 다수에게 유익이 가는 논리이기 때문에 비교적 선하게 됨. 그러나 다수가 진리는 결코 아님. 약점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함.

-전체주의;유사종교집단. 공산주의를 종교화함.

-자본주의(특히 금융 종사자들은 통화량을 늘리는데 집중하지 말고,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데 집중해야 한다.)

-자유주의-참 자유의 정의는 죄로부터, 율법주의로 부터의 자유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거짓 선지자 (자신도 속고 남도 속이는 자들) ;특히 이단들의 논

리무시방법을 이용한 선지자들이 많아짐. 거짓과 부정과 불법은 대부분의 원주민들을 장악하고 있는 마귀의 문화.

-거짓이 거짓인 이유 두가지; 논리 무시. 엉뚱한 결론

-불법;법 정신과 법적용은 고도의 엘리트의 직무. 법은 한계가 분명하다. 법정신보다 자구에 얽매이게 됨. 그래서 결국 그 법을 집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충분히 불법이 행해지게 됨. 그러면서도 합법을 가장하게 됨. 합법이나 불법이 됨.